

■ 시골 미술관에서 올 여름 휴가 100배 즐기기

“그림에 반하고 풍경에 취하고”

모처럼 만의 가족 여름 휴가. 밀려드는 인파와 바가지 요금에 지쳐있던 휴양지 인근의 시골 미술관을 찾아 예술이 어우러진 알찬 휴가로 만들어보자. 산골과 바닷가에 자리 잡은 미술관에서 한가롭게 자연을 만끽하며 미술품을 관람하다 보면 따뜻한 휴가가 100배는 즐거워질 것이다. 작가와 큐

리틀, 김광옥, 중국 천진대학 교수인 쉬정리씨의 작품 200여점을 선보인다. 또 전시기간에는 관람객 농촌 체험행사인 ‘여름아 부탁해’를 함께 진행한다.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한지 부채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고, 도예가 이상복씨의 지도로 도자기도 빚을 수 있다. 고운 봉송



3일 고흥 남포미술관을 찾은 한 가족이 고흥 남포미술관(오른쪽)으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남포미술관 제공)

함평 잠월, 바다·산 주제 ‘여름 스케치전’

고흥 남포, 차일만 개인전·도슨트 체험도

곡성 옥과, 안승민 초대전·조각작품 전시

레이터틀로부터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등 도심 갤러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수한 시골미술관의 인심도 경험할 수 있다.

아 물도 손톱에 물들이며, 시원하게 앉아 수박과 전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미술관 앞마당 정자도 언제든 빌려준다.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위치한 잠월미술관은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휴양객들을 위해 ‘여름 스케치전’을 연다. 바다, 산, 꽃을 주제로 한 조보원, 박은용, 박

아 트펜스는 내년 4월 완성될 예정이며 2012년 문화전당 개관 후에도 별도의 미술 작품으로 활용된다. 미술작가 참여 희망자는 ‘친환경, 소풍, 울림’을 주제로 한 작품과 포토콜리도 등을, 시민참여 작가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다음 달 1~3일까지 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7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018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남포미술관은 9월 20일까지 차일만 개인전을 연다. 30여년 동안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 온 차씨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시는 시대별로 나눠 구성됐다. 1970년 작 ‘자화상’ ‘복어’, 1980년 작 ‘일영의 봄바람’, 1990년 작 ‘다나포인트의 조망’, 2000년 작 ‘회광반조’ 등 100여점을 전시한다.

아이들을 위해 조형놀이, 아름다운 관화, 나의 도슨트 체험, 여름방학 미술특강, 할휴놀이, 회화 교실 등도 곁들여진다. 지난 2005년 폐교가 된 영남중학교 부지에 들어선 남포미술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복잡한 휴양지 숙소를 벗어나 한적하게 숙박할 수도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곡성군 옥과면 전남도립 옥과미술관도 9월 18일까지 안승민의 초대전인 ‘세라믹이 있는 풍경’전을 갖는다. 광주출신으로 프랑스양재고등조형예술대학을 졸업한 안씨의 평면회화와 생활도자기가 어우러진 전시이다.

또 아와 조각 공원에서 다양한 조각품도 선보인다. 문정기, 조대원, 양문기, 박준하, 김영자, 조광석, 최동원, 김상욱, 이재길씨 등이 자연을 소재로 빚은 50여점의 조각품을 전시한다. 문의 061-363-7278. 이밖에 주말이후 주변의 빼어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보성 백민미술관은 9월 1일까지, 영암아전미술관은 9월 10일까지 각각 소장품전을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4월 완성될 아시아문화전당 아트펜스 가상 사진.

아시아문화전당 가림막 예술작품된다

추진단, 시민·작가 참여 ‘아트 펜스’ 꾸미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월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설 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가림막을 일종의 ‘아트 펜스’로 꾸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연장 1.2km, 높이 6m 규모의 가림막은 일반 시민 1천여명과 광주·전남 지역 미술인과 시민참여작가 20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형 공공 미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 10명이 참여하는 ‘미술작가 섹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참여작가 10명과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갈 ‘시민참여 섹터’, 공사 내용을 알리는 ‘포털섹터’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구간에는 ‘망루’를 설치, 시민들이 공사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트펜스는 ‘친환경(Ecology)’, ‘소통(Communication)’, ‘참여(Participation)’를 기본 컨셉으로 진행되며 펜스 주변에는 아시아와 ‘의량(義鄴)’ 광주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아트펜스는 내년 4월 완성될 예정이며 2012년 문화전당 개관 후에도 별도의 미술 작품으로 활용된다. 미술작가 참여 희망자는 ‘친환경, 소풍, 울림’을 주제로 한 작품과 포토콜리도 등을, 시민참여 작가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다음 달 1~3일까지 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7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018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광주’ 여름호 나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가 발간하는 ‘문화광주’ 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문화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병욱 팀장과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문화콘텐츠 산업이 광주의 미래다’ 등의 글을 실었다. 또 ‘문화환경’ 코너에서는 최근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과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지회, 내뽕소리민족예술단, 김미숙나무옹단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났다. 문의 062-381-2234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개막때 광주정신 담은 ‘봄’ 선봬 터”

광주 상주 전시 총지휘 비엔날레 오쿠이 예술 총감독

“5·18 항쟁을 경험했던 역사성과 광주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막 당일 광주 정신을 담은 프로젝트 ‘봄(Spring)’을 선보여 광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 개막 D-30일을 맞은 5일,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샌프란시스코 미대학장)이 광주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주와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며 전시기획을 총괄했던 오쿠이 감독은 지난 4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면서 모든 전시 일정을 총지휘하게 된 것이다. 오쿠이 감독은 이날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광주생활’에 들어갔다. 오쿠이 감독의 합류로 비엔날레 개막준비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오쿠이 감독은 제단 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작품배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작품 배치 계획은 60% 정도 마무리된 상태. 또 해외 미술계 인맥이 넓은 오쿠이 감독은 해외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쿠이 감독은 올 가을 아시아 지역의 비엔날레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막하는 데 착안해,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광주비엔날레에 둘러 오를 시간 동안 체류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 개막 D-30일을 맞은 5일,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샌프란시스코 미대학장)이 광주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주와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며 전시기획을 총괄했던 오쿠이 감독은 지난 4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면서 모든 전시 일정을 총지휘하게 된 것이다.

오쿠이 감독은 이날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광주생활’에 들어갔다.

오쿠이 감독의 합류로 비엔날레 개막준비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오쿠이 감독은 제단 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작품배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작품 배치 계획은 60% 정도 마무리된 상태.

또 해외 미술계 인맥이 넓은 오쿠이 감독은 해외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관련 오쿠이 감독은 올 가을 아시아 지역의 비엔날레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막하는 데 착안해,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광주비엔날레에 둘러 오를 시간 동안 체류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이응우 재단 상임부이사장, 오쿠이 예술총감독,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홍보관에 전시된 역대 비엔날레 대상작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